

- ① **চেদেও জেখেরগিরি**를 원한다면 안전도 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If You Want to Know What It's Really Like, Forget the Safety Hat.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②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거기 있는**  
Although No longer Visible a Presence is There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2.9x40, 26.62x10cm
- ③ **"탐욕" 혹은 "막음"**  
"Clear" or "Block it"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cm
- ④ **층위가 있는 "벽 살릴"**  
Layered "Wall to be Kept"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7x40, 40x40cm
- ⑤ **볼 수 없지만, 두팔할 나위 없이 거기 있는**  
Invisible but harguably There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⑥ **코끼리 공주 : "당신은 이 작은 구멍에서 코끼리가 보이나요?"**  
**현장에서 만난 아저씨 : "그렇지 않은데요."**  
**코끼리 공주 : "그렇다면 여우는요?"**  
**현장에서 만난 아저씨 : "렐리서 보면 보이네요. 당신이 좋아요."**  
Elephant Princess: "Can you see an elephant in this little hole?"  
Worker: "Not really"  
Elephant Princess: "How about a fox then?"  
Worker: "If I look from a distance, I can see it. You are right."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45x45cm(text)
- ⑦ **가위 다리**  
Scissors and Legs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cm
- ⑧ **동지 극장**  
Niche Theater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30x40cm
- ⑨ **숨어있는 눈들과 유니콘**  
Hiding Eyes and a Unicorn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40, 26x40cm
- ⑩ **어머니와 어머니**  
Mother with Mother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⑪ **"오래된 집을 찾으세요? 오래된 초가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an Old House? I Can Show You an Old Thatched House."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⑫ **배가 부른 천**  
Stuffed Cloth (2015) Archival pigment print, 90x135cm

- ⑬ **"첼저" 라는 단어가 당신에게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As the Word "Demolish" Reflected on You (2015) Found glass from Dongmun Motel with aluminum frame 65 x76.5cm
- ⑭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1.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밝기와 콘트라스트 조정 130)"**  
**2.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 (밝기와 콘트라스트 조정 65)"**  
**3.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원본)"**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each  
1: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Brightness and Contrast Adjusted 130)  
2: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Brightness and Contrast Adjusted 65)  
3: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Original)
- ⑮ **친절하게 숨은**  
Friendly Hideaway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 ⑯ **얼어버린 천상의 구**  
Frozen Celestial Sphere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 ⑰ **세 개의 천상의 구**  
Three Celestial Orbs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30x40cm
- ⑱ **빗질 작전**  
Combing Operation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35cm
- ⑲ **케도**  
Orbit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 ⑳ **교차로**  
Intersection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㉑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It No Longer will be Seen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40cm
- ㉒ **망사**  
Mesh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27x60, 25x40, 30x40cm
- ㉓ **균형 잡는 남자 :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Balancing Man: "It's not dangerous, I'm ok."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90x135, 45x45cm (text)

## 균형 잡는 남자 | 平衡 잡는 男 子

### 층위의 균형잡기

현재 상태에서, 벽에 걸린 이미지들은 변형되었다. 공간은 물질상과 변형의 개념과 관련된 논쟁에 개입된 듯하다.

일시적이고 사라져가는 표면과 캐릭터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제안된 연상(聯想)들은 현존한다. 그들은 프로젝트 과정 내내 나의 경험들을 이끌었고 공간을 통해 여장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공사현장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통 건물은 비가시적인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층위에서 층위로 움직이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에 기반을 둔 역사와 미래의 내러티브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동문모텔Ⅱ에서의 프로젝트 “층위의 균형잡기”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라리오 뮤지엄 동문모텔Ⅱ의 “공명하는 삼각형”의 전시의 일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큰넓케 동굴을 소개해 주신 제주 4.3 연구소의 최희영, 텍스트 작품 그래픽 디자인 권오현,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김태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외 프로젝트를 위해 도와주신 김선정, 김아영, 김희철, 송호준, 정소영, 클라우디아 페스타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텍스트 편집 | 브리짓 오브라이언  
감수 | 신현창  
프로젝트, 텍스트, 사진 | 이주영

### BALANCING LAYERS

As it stands now, transformed with these images on the walls, the transient, disappearing surfaces and the characters and associations suggested through the images and texts, are present.

They guided my experiences throughout this process and informed the journeys through this space, yet they are also precarious constructions.

This precariousness by nature is usually invisible although integral to the process of building itself and to the balancing that is necessary to move from layer to layer as we become part of the time-based narratives of histories and futures.

Text written during the project "Balancing Layers" at the Dongmun Motel II, 2015. This project has been supported by ARARIO MUSEUM DONGMUN MOTEL II as part of the exhibition "A Resonating Triangle".

#### Special thanks to:

Heeyoung Choi from the Jeju 4.3 Institute for her assistance at Keunneolgwae Cave. Ohyun Kwon for graphic design on the text work. Taejun Kim for project assistance.

Thank you also to those who supported the project:

Soyoung Chung, Ayoung Kim, Sunjung Kim, Hee Chul Kim, Claudia Pestana and Hojun Song.

Text edited by | Bridget O'Brien  
Proofreading by | Hunchang Shin  
Project, text and photographs by | Jooyoung Lee

## 이주영 | 층위의 균형잡기

영화 ‘지슬’ 의 주 배경이 된 동굴 큰넓케와 이와 관련된 역사(제주 4.3 사건)가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다. 사건을 피해 적지 않은 수의 제주시민들이 숨어 지내던 동굴에서 나는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지역 역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 사람들이 두 달 동안 은신했던 곳을 방문했다.

“층위의 균형잡기” 전시는 이 동굴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나의 경험과 최근까지도 진행 중이던 동문모텔II 현장 리노베이션 과정이 함께 층위를 이루고 있다. 층위에 대한 조사, 즉 다른 표면과 텍스처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만약 고고학자가 발견한다면 어떻게 기록했는지 상상하면서 작품을 발전시켰다. 작품들은 모텔에서부터 뮤지엄으로 지속적으로 변모해가는 이 현장의 물질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사진들은 이미지가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관점을 확장한다. 매우 고요한 듯 보이는 이미지들은 장소와 역사의 층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조각적 성격을 지닌다. 이미지들은 이 공간과 공사현장의 층위가 해체된 것으로서 동굴에서 벌어졌던 역사를 목격하려 했던 나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추상적이며 그 주제는 물질, 표면, 그리고 실체의 중첩으로 제안된다.

—

### ①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안전모 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의심할 여지도 없이 직접 동굴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동굴을 따라가면서, 고통 받은 그들이 무엇을 느꼈고, 보았고, 들었는지를 상상하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쉽지는 않았다. 거기에는 죽은 세계의 잔존물, 1948년부터 있었던 살림살이의 증거물들이 있었다.

누군가의 과거의 텅 빈 박물관에 들어갔던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존재가 갇힌 듯한 파편들에 압도되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의해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고, 거기서 빠져 나오고만 싶었다. 아주 힘든 순간이었다.

우리는 역사의 언어로써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실제 이야기를 인지한다고 상상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역사 속 그들에게 대입해보는 일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만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이해는 결국 가짜일 뿐이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가.

### ②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거기 있는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2.9x40, 26.62x40cm

창문 밖 풍경에 사로잡혔다.

돌아와서 또 보고 싶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좀처럼 조명되지 않는다. 재개발 현장은 우리가 늘 접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내가 서 있던 곳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곧 이곳은 무언가에 다시 덮이거나 잊혀질 것이다.

이 건물은 70년대 군사정권 때 건설한 아파트를 연상시킨다. 사진 현상소에서 내 사진들을 프린트해준 남자는 그가 여행할 때 본 오키나와의 건물들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 ③ “맑음” 혹은 “막음”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cm

벽과 벽 사이에 '맑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 문자 그대로 이 단어는 흔히 날씨를 얘기할 때 쓰인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 초기에 누군가가 이 부분을 무언가로 '막기' 위해 쓴 것일 터이다. 글씨가 들렸다가 보다 언어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

### ④ 층위가 있는 “벽 살림”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7x40, 40x40cm

아마도 누군가가 벽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 듯하다. 마치 껍질이 벗겨진 빵을 닮았다. 하나의 캐릭터가 되었다.

### ⑤ 볼 수 없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거기 있는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이 ‘페인팅’ 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시멘트로 덮이거나 그라인더로 지워질 수도 있다. 추하거나 ‘그로테스크(grotesque)’ 하게 보인다. ‘그로테스크’ 의 어원은 지하의 신성한 장소 - ‘그로토(grotto)’ 이다. 그로테스크는 적절한 표현인 듯하다.

### ⑥ 코끼리 공주 : “당신은 이 작은 구멍에서 코끼리가 보이나요?” 현장 노동자 : “그렇지 않은데요.” 코끼리 공주 : “그렇다면 여우는요?” 현장 노동자 : “멀리서 보면 보이네요. 당신이 옳아요.”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45x45cm(text)

동문모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이다.

숨겨진 캐릭터와 동물들을 현장의 거친 벽에서 우연히 만나기 시작했다. 들여다볼수록 좀 더 다른 생물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와 함께 공유했다. 그는 우연히 나의 협업자가 되었다. 몇 개의 상상의 캐릭터가 주어졌다.

### ⑦ 가위 다리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cm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표면에 빠져드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나의 상상력의 산물인 가위 같은 다리를 가진 캐릭터가 춤을 춘다.

우연히 큰넓케 근처 동광리에 ‘무뎅이왓’ 이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지역민속학에 의하면 이 마을의 지형은 아이가 춤추는 것을 닮았다고 한다. 이 마을은 4.3 사건 이후 사라졌다.

### ⑧ 동지 극장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30x40cm

동지 안에 있는 밀가루 반죽 같은 텍스처와 어떤 층위가 떠올랐다.

자세히 보면 이야기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이야기는 상상일 뿐이다. 하지만, 이 동지 극장 캐릭터는 결국 실제 극장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 ⑨ 숨어있는 눈들과 유니콘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40, 26x40cm

상황이 나에겐 환상이 되었다. 만약 존재한다면, 이른 아침의 환상들처럼. 갑자기, 나는 범죄현장의 과학 수사대가 되어 있었다.

### ⑩ 어머니와 어머니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다. 아이는 어머니가 된다. 이 여자는 자유의 형상 같다.

4.3 사건과 관련된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 ⑪ “오래된 집을 찾으세요? 오래된 초가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과거 모텔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고 나니 현장 인부 중 한 명이 오래된 초가집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필시 궁금해서 나를 따라왔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공유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 ⑫ 배가 부른 천 (2015)

Archival pigment print, 90x135cm

이 천은 꽤나 만족한 듯하다. 제주의 바람으로 채워졌다

### ⑬ “철거” 라는 단어가 당신에게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2015)

Found glass from Dongmun Motel with aluminum frame 65 x76.5cm

유리 프레임에 의해 빛이 벽에 반사된 순간이다. 이것은 무형의, 거의 비가시적인 반사의 영역이 된다. ‘철거’ 라는 단어가 투영된 빛 안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하면서, 1948년 제주에서 사회의 기본 원리가 부정된 것처럼 법이나 원칙이 집행 유예된 순간들을 생각한다.

### ⑭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each

1.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밝기와 컨트라스트 조정 130)
2.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밝기와 컨트라스트 조정 65)
3.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원본)

큰넓케 동굴을 다녀오는 길에 콘크리트로 덮인 길을 보았다. 고요한 풍경에는 어떤 강함이 있었다. 새는 노래를 불렀다.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부터의 이미지를 조정하기로 했다.

### ⑮ 친절하게 숨은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이 캐릭터는 숨어있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 ⑯ 얼어버린 천상의 구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결정화된 순간. 다시 동굴의 경험이 투사되었다.

### ⑰ 세 개의 천상의 구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30x40cm

실체가 없는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도달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한다. 나는 가끔 진짜와 실체가 없는 것을 혼동한다. 심지어는 실체가 없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다.

### ⑱ 빗질 작전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35cm

4.3 기념관에서 알게 된 ‘빗질 작전’ 이란 구절을 연상시킨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작전명 중 하나이다. 실제로 빗질을 한 듯한 차분한 이미지는 빠르게 돌아가는 공사현장 바닥에서 찾았다. 불행하게도 사진을 찍기 위해 나는 첫 번째로 발로 이미지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나는 군사작전 중 수많은 마을들이 쓸려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 ⑲ 궤도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어느 한 순간에서 다음 순간, 나는 마치 다른 공간에 있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린 듯하였다. 익숙한 공간에서 나는 외계인 같은 생경한 이미지를 찾았다. 외계 같은 공간은 도달 할 수 없는 공간이다.

### ⑳ 교차로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다시 현장의 거친 표면에 와 있다.

### ㉑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40cm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있다. 나는 이것들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고 있다.

### ㉒ 망사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27x60, 25x40, 30x40cm

더 이상 동굴에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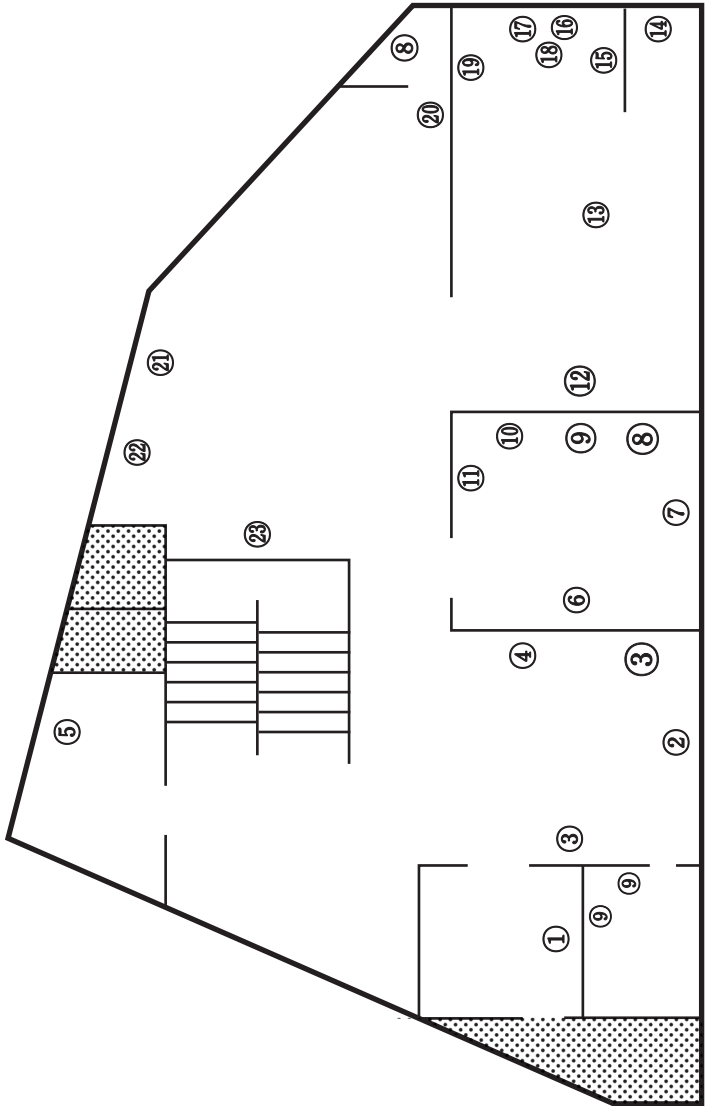
여전히 이 도시 안에서 사라질 것들과 동굴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매우 확실한 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닌 것들은 다분히 현재와 과거가 동시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나와는 어떤 거리감이 있기에 이상하게 느껴진다.

### ㉓ 균형 잡는 남자 :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90x135, 45x45cm (text)

현장 노동자가 공사현장 비계(飛階)위에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지 물었다. 매우 위험해 보였지만 그는 문제없다고 했다. 비계 위에서 균형 잡는 모습은 공중 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했다. 내가 동굴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제주 사람들도 살아나온 것 같고 (이 현장 노동자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큰넓케 동굴을 다녀오는 길에 본 길)과 이미 시작된 미래를 만들었다.





- ① **চেদেও জেখেরগিরি**를 원한다면 안전도 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If You Want to Know What It's Really Like, Forget the Safety Hat.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②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거기 있는**  
Although No longer Visible a Presence is There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2.9x40, 26.62x10cm
- ③ **"타움" 혹은 "막음"**  
"Clear" or "Block it"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cm
- ④ **층위가 있는 "벽 살릴"**  
Layered "Wall to be Kept"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7x40, 40x40cm
- ⑤ **볼 수 없지만, 두팔할 나위 없이 거기 있는**  
Invisible but harguably There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⑥ **코끼리 공주 : "당신은 이 작은 구멍에서 코끼리가 보이나요?"**  
**현장에서 만난 아저씨 : "그렇지 않은데요."**  
**코끼리 공주 : "그렇다면 여우는요?"**  
**현장에서 만난 아저씨 : "렐리서 보면 보이네요. 당신이 좋아요."**  
Elephant Princess: "Can you see an elephant in this little hole?"  
Worker: "Not really"  
Elephant Princess: "How about a fox then?"  
Worker: "If I look from a distance, I can see it. You are right."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45x45cm(text)
- ⑦ **가위 다리**  
Scissors and Legs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cm
- ⑧ **동지 극장**  
Niche Theater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30x40cm
- ⑨ **숨어있는 눈들과 유니콘**  
Hiding Eyes and a Unicorn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40, 26x40cm
- ⑩ **어머니와 어머니**  
Mother with Mother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⑪ **"오래된 집을 찾으세요? 오래된 초가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an Old House? I Can Show You an Old Thatched House."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⑫ **배가 부른 천**  
Stuffed Cloth (2015) Archival pigment print, 90x135cm

- ⑬ **"첼저" 라는 단어가 당신에게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As the Word "Demolish" Reflected on You (2015) Found glass from Dongmun Motel with aluminum frame 65 x76.5cm
- ⑭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1.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밝기와 콘트라스트 조정 130)"**  
**2.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 (밝기와 콘트라스트 조정 65)"**  
**3. "큰넓케 다녀오는 길, 새가 노래할 때 (원본)"**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each  
1: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Brightness and Contrast Adjusted 130)  
2: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Brightness and Contrast Adjusted 130)  
3: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Original)
- ⑮ **친절하게 숨은**  
Friendly Hideaway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 ⑯ **얼어버린 천상의 구**  
Frozen Celestial Sphere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 ⑰ **세 개의 천상의 구**  
Three Celestial Orbs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30x40cm
- ⑱ **빗질 작전**  
Combing Operation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35cm
- ⑲ **깨도**  
Orbit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 ⑳ **교차로**  
Intersection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 ㉑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It No Longer will be Seen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40cm
- ㉒ **망사**  
Mesh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27x60, 25x40, 30x40cm
- ㉓ **균형 잡는 낚자 :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Balancing 'Man: "It's not dangerous, I'm ok."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90x135, 45x45cm (text)

# 균형 잡기 | 平衡

## 층위의 균형잡기

현재 상태에서, 벽에 걸린 이미지들은 변형되었다. 공간은 물질상과 변형의 개념과 관련된 논쟁에 개입된 듯하다.

일시적이고 사라져가는 표면과 캐릭터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제안된 연상(聯想)들은 현존한다. 그들은 프로젝트 과정 내내 나의 경험들을 이끌었고 공간을 통해 여장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공사현장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통 건물은 비가시적인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층위에서 층위로 움직이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에 기반을 둔 역사와 미래의 내러티브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동문모텔Ⅱ에서의 프로젝트 “층위의 균형잡기”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라리오 뮤지엄 동문모텔Ⅱ의 “공명하는 삼각형”의 전시의 일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큰넓케 동굴을 소개해 주신 제주 4.3 연구소의 최희영, 텍스트 작품 그래픽 디자인 권오현,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김태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외 프로젝트를 위해 도와주신 김선정, 김아영, 김희철, 송호준, 정소영, 클라우디아 페스타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텍스트 편집 | 브리짓 오브라이언  
감수 | 신현창  
프로젝트, 텍스트, 사진 | 이주영

## BALANCING LAYERS

As it stands now, transformed with these images on the walls, the transient, disappearing surfaces and the characters and associations suggested through the images and texts, are present.

They guided my experiences throughout this process and informed the journeys through this space, yet they are also precarious constructions.

This precariousness by nature is usually invisible although integral to the process of building itself and to the balancing that is necessary to move from layer to layer as we become part of the time-based narratives of histories and futures.

Text written during the project "Balancing Layers" at the Dongmun Motel II, 2015. This project has been supported by ARARIO MUSEUM DONGMUN MOTEL II as part of the exhibition "A Resonating Triangle".

### Special thanks to:

Heeyoung Choi from the Jeju 4.3 Institute for her assistance at Keunneolgwae Cave. Ohyun Kwon for graphic design on the text work. Taejun Kim for project assistance.

Thank you also to those who supported the project:

Soyoung Chung, Ayoung Kim, Sunjung Kim, Hee Chul Kim, Claudia Pestana and Hojun Song.

Text edited by | Bridget O'Brien  
Proofreading by | Hunchang Shin  
Project, text and photographs by | Jooyoung Lee

Keunneolgwe Cave, the main location of the film “Jiseul”, was an early departure point for me in the development of this project. After learning something of its history, I wanted to experience the caves where numerous villagers sought refuge from persecution during the Jeju 4.3 incident. With the assistance of a local historian, I visited one of the caves the villagers used as a hiding place for around two months in 1948.

The exhibition, "Balancing Layers", is a response to my experience of attempting to enter this cave, layered with reflections on the renovation of the Dongmun Motel in preparation for the exhibition. The work became an investigation into layers, much as an archaeologist might document their findings as they sift through different surfaces and textures. I wanted the work to suggest the ongoing transformation of the site, shifting from motel to museum, a place where people have been and continue to be and work.

In these photographs, I try to extend their perspective beyond the images they convey. While very silent, they are sculptural, relating closely to the layers of location and history. They cut through the layers of space and site and are relevant to my attempt to bear witness to the history that occurred in the caves. The images are abstract and the subject is suggested in the merging of material, surface and substance.

① If You Want to Know What It’s Really Like, Forget the Safety Hat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I was drawn to see the cave for myself.

As I was led into the cave I tried to imagine what the people who suffered there had experienced. There were a few household items left since 1948, the remains of a dead world.

But as I stepped into this empty museum and looked around at the few fragments of the villagers’ trapped existence, I was overwhelmed. I felt my breath stifled by an unknown force. I struggled but could not resist the urge to escape to the surface. It was extremely uncomfortable for me.

I realized that although we imagine that we perceive the real story, inside the words, telling a history, we do this by substituting ourselves for the people in the story we pretend to understand because we think we understand ourselves.

I realize how we deceive ourselves.

② Although No Longer Visible, a Presence is There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2.9x40, 26.62x40cm

I was preoccupied by the landscape outside the window.

I wanted to keep returning to it, since it is something you don’t usually pay attention to. A construction site is not uncommon; they are everywhere. But I also knew it was something that would be obliterated, no longer seen from where I was standing. Soon it would be covered up again and forgotten.

It reminded me of the apartments built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era of the 1970s. The print lab assistant who processed these images told me that these apartments reminded him of ones he had seen when he travelled to Okinawa.

③ “Clear ” or “Block It”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cm

I came across some handwriting on the wall that I read as the word ‘맑음 (malgeum)’. Literally translated, it means ‘clear’; a word that might be used when talking about the weather. I looked a little closer and saw it actually was ‘막음 (makeum)’, literally translated as ‘block it’.

It may have been written by someone at the beginning of the restoration to indicate there was something to block. I had confused one word with another. Perhaps a reconstruction of language rather than just something on the surface?

④ Layered “Wall to be Kept”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7x40, 40x40cm

This was most likely written by a worker at the site to indicate the wall is to be kept as is. It is like a bread crust. It becomes a character.

⑤ Invisible, but Inarguably There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cm

This ‘painting’, this mark on the wall, will no longer be seen. It may be blocked by cement or polished by a grinder. It seems ugly or grotesque. The word ‘grotesque’ comes from the word ‘grotto’: an underground sanctuary. Perhaps grotesque is appropriate.

⑥ Elephant Princess: “Can you see an elephant in this little hole?”  
Worker: “Not really.”  
Elephant Princess: “How about a fox then?”  
Worker: “If I look from a distance, I can see it. You are right.”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45x45cm(text)

This was a conversation I had with a worker at the Dongmun Motel construction site. I had begun stumbling upon characters and animals hidden on the raw surfaces of the walls. The more I looked, the more different creatures occurred to me.

I shared these imaginings with one of the workers. He became an accidental collaborator. Existence was given to a few of these imaginary characters.

⑦ Scissors and Legs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cm

I found myself moving my gaze toward the surfaces that had not previously been visible to me. I could see a scissor-legged character dancing, but it was merely a figment of my imagination.

I discovered there was a village called ‘Mudengiwat’ in Donggwang-ri, close to Kenneolgwe cave. According to local folklore, a topographical feature of this village looks like a child dancing. The village was wiped out during the Jeju 4.3 incident.

⑧ Niche Theater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30x40cm

Textures and layers come to mind here, a niche in chunks of dough.

Looking at this can be like making up characters in a story. We know these are only imaginary. But I wondered, could these characters eventually become a part of a real theatre?

⑨ Hiding Eyes and a Unicorn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40, 26x40cm

Things became unreal to me. It is like an early morning reverie if it exists at all. Suddenly, I became a criminal investigator.

⑩ Mother with Mother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A mother is holding a baby. The baby may also become a mother. The woman is like a figure of freedom.

I began to consider how the trauma is still continuing for those whose families were involved in the 4.3 incident.

⑪ “Are You Looking for an Old House? I Can Show You an Old Thatched House.”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After I had explained what I was looking for, something that showed the old traces from the previous motel, one of the workers said he knew of an old traditional house. He said it was “an old thatched house”. He must have been curious to follow me. I began to wonder how these ideas might be shared.

⑫ Stuffed Cloth (2015)  
Archival pigment print, 90x135cm

The cloth was stuffed, satisfied. It seemed to be filled by the winds of Jeju.

⑬ As the Word “Demolish” is Reflected on You (2015)  
Found glass from Dongmun Motel with aluminum frame 65 x76.5cm

A moment occurred to me as the light reflected onto the wall from a glass frame. An intangible, almost invisible area became a zone of reflection. Imagining myself standing within this light projecting the word ‘demolish’ onto me, I considered the consequences of moments when laws are suspended in the way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ivil society were denied in Jeju in 1948.

⑭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each

1.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Brightness and Contrast Adjusted 130)
2.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Brightness and Contrast Adjusted 65)
3. "On My Way to the Cave, a Bird was Singing" (Original)

On my way to the cave, I saw that the road had been covered over with concrete. There was strength in the landscape in its silence. Suddenly, a bird was singing. I decided to adjust the image into three period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⑮ Friendly Hideaway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A character is hiding and protecting us.

⑯ Frozen Celestial Sphere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A crystallized moment. My experience of the cave is projected here again.

⑰ Three Celestial Orbs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30x40, 30x40cm

I began to imagine unreal things. Some things are simply intangible; they just cannot be reached. I remember what it was. I would sometimes confuse it with the real thing. I couldn’t tell the real from the unreal.

⑱ Combing Operation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35cm

This image reminded me of the phrase ‘combing operation’ I encountered at the 4.3 Memorial Museum. It is one of the names of the 4.3 military operations. Actually, this comb/calm image was taken from the floor of the busy construction site. Unfortunately, to take this photograph I ended up being the first one to ruin it with my foot. I know many villages were wiped out during the military operation.

⑲ Orbit (2015)  
Archival pigment print, 40x60cm

From one moment to the next, I seemed to be in a different place and quickly forgot where I was. I found an alien-like image in this familiar place. This alien space can’t be reached.

⑳ Intersection (2015)  
Archival pigment print, 60x90cm

I’m back on a raw surface again.

㉑ It will No Longer be Seen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60x90, 26x40cm

Everything in a city has an ephemeral aspect. I am learning to accept this. I am learning to live with that.

㉒ Mesh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27x60, 25x40, 30x40cm

I am not at the cave anymore.

I am still looking at th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that will disappear in this city, and existing between the cave, its past, and the future. I am fairly certain now that the things that followed had as much to do with the past as with the present and I am finding it odd, now that I have some distance from it.

㉓ Balancing Man: “It’s not dangerous, I’m ok.” (2015)  
Archival pigment prints, 90x135, 45x45cm (text)

I asked the worker who was balancing on the scaffold whether he was safe. He said he was fine but it looked very dangerous. The way he was balancing reminded me of a tightrope performer in the middle of the sky. As I survived from the cave I felt that people in Jeju all survived (as he did too) from the cave and built the road forward (that road I saw on my way to the cave), and the future that has already begun.